지역 소식통

고창군보건소, 2024년 보건사업 다수 수상 쾌거

고창군보건소가 올해 중앙부처·전북도 평가에서 6개나 되는 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중앙·전북도 평가에서 잇따른 상을 수상했다.

먼저, 치열하기로 소문난 중앙부처 평가에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_여성 시니어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주관 3개 사업(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 2024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우수기관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평가에선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감염병 대응분야 등 2개 부문에서 우수평가로 상을 받았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와 감염병 대응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의 성과는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그림책 도서관' 인기 만점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찾아가는 그림책 도서관'을 통해 지역 설화를 어린이들에게 전하며 독서와 지역 문화를 잇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림책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주민참여제 예산으로 추진된 정읍 설화그림책 출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설화를 담은 그림책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처음으로 출간된 정읍 설화그림책은 12명의 시민작가들이 원고를 집필해 '두 번 사는 도령(덕천면)'과 '보림사 장사천의 비밀(칠보산)' 등 두 권의 그림책으로 탄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년 국가예산 5807억 확보

정읍시, 첨단산업 육성 ·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역 발전 · 미래 성장 기반 강화

정읍시가 2025년 국가예산으로 5807억원을 확보하며 전년 대비 159억원(2.8%)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첨단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에는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24.75억원, 총사업비 99억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7억원, 총사업비 120억원) △내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억원, 총사업비 279억원) △입암처리분구 2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5억원, 총사업비 88억원) △산외면 원종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3억원, 총사업비 100억원) 등 15개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 1775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예산을 통해 주요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사업(50억원, 총사업비 205.4억원) △중앙3처리구역(북면·정우·태인) 하수관로 설치사업(46.57억원, 총사업비 199.43억원)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45.9억원, 총사업비 173.28억원) △용흥 외 5개 지구 배수개선사업(141억원, 총사업비 858억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26억원, 총사업비 70.8억원) 등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첨단산업과 SOC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번 예산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속가능한 정읍시를 위해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국회단계에서 증액되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 국회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 지역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

32개 맞춤형 시책 실행… 이학수 시장의 청렴의지 '결실'

정읍시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4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외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내부 직원과 외부 업무 관계자의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 등을 점수화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해 매년 발표한다.

시는 지난 2021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지만 이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3년과 2024년 모두 2등급을 달성하며 2021년 대비 3단계 도약에 성공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청렴을 시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이학수 시장의 신념과 행정 리더십에 더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효했다.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인사 청탁 금지와 금품 제공 근절 등 부패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반부패 청렴추진단 운영, 취약 분야 청렴 문자 알리미,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등 32개 청렴시책을 실행하며 체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도전골든벨' 방식을 차용한 '청렴골든벨'을 개최하는 등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썼다. 이 프로그램들은 청렴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학수 시장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기반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내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추모의집, 내년부터 투시형 봉안함 교체 지원

고창군 추모의집이 1월부터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봉안함을 기존 밀폐형에서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으로 교체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고창군 추모의집은 운영 초기인 2004년부터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형 봉안함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타 지자체 사례와 이용자들의 건의가 이어지면서 유골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시형 봉안함도 동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밀폐형에서 투시형으로 봉안함 교체 비용은 자부담 2만원이며, 사진이나 유품을 넣고자 하는 유족대표에게만

봉안함을 개방해준다.

봉안함 전면부를 투명한 강화유리로 변경해 내부에 있는 유골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인과 유족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한층 더 좁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장문화가 점점 보편화되는 만큼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하여 투시형봉안함 1250기를 추가 설치했다. 개인단만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부부단을 함께 운영해 부모님 유골함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된다.

고창군 추모의집은 쾌적한 추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난방기 설치, 바닥타일 및 조명 교체 등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연차적인 리모델링으로 선호도 높은 봉안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최고의 추모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헌재, 윤석열 탄핵 인용하라"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의 정책 실패와 헌법적 책임 미이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운영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치 위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헌법적 질서를 지키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다(多)올(ALL)' 통합서약서 도입

부안군, 계약서류 획기적 완화… 행정 신속성 민원 편리성 증대

부안군은 2025년부터 계약서류 간소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 다(多)올(ALL)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각서 등 최대 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는 개별 서식마다 업체명, 대표자명 등 작성해야 할 내용이 중복되고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서류 보완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간소화 정책은 제출되는 서류에 부담을 많이 느껴왔던 관내 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종으로 획기적으로 완화해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편리성 증대로 계약 업무에 대한 만족도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허미순 재무과장은 "이번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도입을 통해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의 명칭을 '부안 다(多)올(ALL)' 계약이행통합서약서로 정했으며 다올은 '하는 일마다 모두 복이 들어온다'는 순우리말로 2025년 새해를 맞아 군과 계약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좋은 일들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에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잇따라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으로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날 정읍시청 사회복지직 직원 단체인 사회복지 행정연구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130만원을 기탁했다. 1991년 창립된 행정연구회는 회원 간의 정보 교환과 사회복지 및 행정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신철 회장(수성동장)은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며 기탁의 뜻을 전했다.

같은 날, 수성동 직원들도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2024년 읍면동 종합 행정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읍면동으로 선정된 데 따른 상금을 좋은 일에 사용하자는 뜻을 모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이와 함께 태인농공단지에 위치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체 전광ENG(대표 이경록)도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동참했다. 이경록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기탁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학생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